

살처분의 트라우마부터 근골격계질환까지

드라마 <나쁜 엄마> 속 축산농가의 애환

글 편집실

사료 가게 직원 진영순(라미란)은 돼지농장 사장 최해식(조진웅)으로부터 인상 깊은 프리포즈를 받고 가정을 이룬다. 하지만 해식이 용역 강패 송우벽(최무성)으로부터 자살로 위장돼 죽임을 당하면서 신희의 단꿈은 깨진다. 송우벽은 88올림픽 마라톤 코스 정비를 이유로 돼지농장 철거를 협박해 왔으며, 해식이 부당한 집행에 항거하자 돼지농장에 불을 지른 바 있다. 송우벽과 결탁한 비리 검사 오태수(정웅인)는 해식의 신뢰를 이용하고, 해식의 죽음을 은폐한다. 결국 영순은 살아남은 몇 마리의 돼지와 함께 '조우리 돌담 마을'로 이주해 작은 돼지농장을 새로 꾸린다. 영순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냄새 나는 혐오 시설"이라며, 가축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마을 사람들의 거동도 불편해진다며 원성을 높인다.



재난·재해에 노심초사하는 축산농가

가축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가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질병이다. 치사율이 최대 55%까지 올라가는 감염병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강산이나 강알칼리(pH6 이하 또는 9 이상)에 쉽게 죽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AI는 야생 조류나, 닭·오리 가금류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

하지 않고 있다. 돼지 전염병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가장 치명적이다.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며 구제역처럼 사람에는 옮지 않는다. 세 가지 모두 국가재난형 전염병으로, 정부는 전염병이 발병하면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가축은 물론 주변 농가의 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도 매몰·살처분한다. 이때 오랫동안 정성껏 키워온 가축들을 자신의 손으로 생매장해야 하는 농가들은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영농기반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절박한 심정에 내몰리기도 한다.

살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방역업체 노동자들 또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에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매년 10월에서 1월까지를 '가축질병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언급된 전염병들은 2~3년에 한 번씩 발병해 농가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든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는 축산농가가 유독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2017년 돈사 정화조 청소 작업 시 황화수소에 의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 기온이 올라 부패한 돈분에서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발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황화수소의 경우 그 농도가 20~30ppm이 되면 후각신경세포가 피로하게 되며, 100~200ppm의 농도로 되면 후각신경이 마비, 700ppm을 초과할 경우 혈액 중 산화 능력을 초과,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신경독성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양돈장 정화조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작업 전과 과정 중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연재해 또한 축산농가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2020년 낙뢰로 인한 감전사로 젖소가 폐사하는 사고도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울산 울주 양돈장 화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과 함양, 충남 천안·보령·공주, 전북 정읍, 경기 안성 등 전국에서 화재가 속출하고 있다.

늙어가는 축산농가, 일상이 되어버린 근골격계질환

축산농가 노동자들은 작업 특성상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고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일하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여느 육체노동보다 근골격계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고령화 정도가 심해 노동자 스스로 나이 증가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농가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초고령화' 시대에 이미 진입했지만, 후계인력 확보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농가 숫자는 연평균 1.4% 감소하는 중으로, 축산업의 기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